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6호

2024년 9월

여름나기	손 현 섭	2
3세대를 이어온 무교회신앙	츠치야 마호	3
신약성서 번역본(행 2:1-10)	전 준 덕	7
에베소서 읽기(5)	손 현 섭	24
바울 사도 소전(小傳)6-2	최 정 일	31
해방의 기쁨	한 정 주	43
누가복음 강해(82)	권 태 주 역	52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58
완전한 구원	최 제 현	60
2024 가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	편 집 실	71

성서신애사

여름나기

올여름은 정말 덥다.

오늘이 8월 말인데 아직도 34~5도이니 주의하라는 폭염 경고 문자가 몇 번씩 올린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어두워지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게 하루 루틴이었는데, 밤에도 더위가 그대로여서 요즘은 그마저도 중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햇볕이 있어야 고추도 익고 벼도 익으니 여름을 마냥 싫어할 수만은 없다. 우리집 작은 텃밭에서도 며칠만 지나면 가지도 한 바구니, 상추도 한 바구니를 딸 수 있다. 오늘 아침에는 넝쿨 아래 여기저기 숨어서 자라는 호박을 보고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어디 자연뿐인가. 이 더운 날에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사람들, 무더위를 온몸으로 견디며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새삼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가는 자연과 세상을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우리 몸의 지체’에 관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생각한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듯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 하나하나, 사람들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곧 선선한 가을이 오면 무더위도 물러갈 테니,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막바지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란다.

이 힘든 여름을 병상에서 보내는 분들을 있어 늘 기도하는 중이다. 특히 이번에 뜻밖의 투병생활을 하시게 된 성서신우회 회장 한만하 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손현섭).

3세대를 이어온 무교회신앙

(이마이칸뉴스 제59호, 2024.7.31.)

츠치야 마호(土屋 真穗)

번역 김복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교회 기독교 신자였다. 그 신앙은 부모님으로 이어져 나도 무교회의 가정에 연결되어, 3세대에 걸쳐 무교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자기 스스로 신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신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신앙이 시작된 가정이었다.

외할아버지이신 이시하라 쇼이치(石原正一, 1917~2010, 清水집회)님은 신앙에 들어가기 전 그리스도교에 대해 혐오감을 품어,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성서를 발견하고는 불에 태웠던 사람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터에서 같은 고향의 지인(望月 님)이 간직하고 있던 ‘가신(嘉信, 야나이하라 선생 잡지)’을 읽고, 전쟁이 끝난 후 신앙에 들어왔다. 전쟁은 죄이며 자기 자신도 죄인의 괴수였다고 평생 반복하여 말씀하셨었다. 이후 스스로 집회를 시작하였고, 10명 정도가 모여 매주 일요집회를 하셨다. 지금은 니시사와(西澤正文) 선생님이 이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손자인 우리를 위해 어린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성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종이로 하는 성서 연극도 보여주셨다. 또 생일에는 해마다 꼭 성서 말씀을 하나 선택하여 카드에 적어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할아버

지. 젊은 세대인 나의 고민이나 내가 처한 상황도 다 이해해 주시고, 직접 상담까지 해주셨던, 정말 유연한 생각을 가졌던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우리를 지켜봐 주셨던 외할머니(石原美千代)의 모습도 지금 눈앞에 선하다.

친가 쪽 우리 할머니, 츠치야 유리코(土屋百合子, 1928~2018, 東京 집회) 님은 숙부님이었던 이노우에(井上伊之助) 선생이 대만 전도를 마치고 귀국하여, 유리코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성서와 대만 전도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의 소개로 마사 이케 진(政池仁) 선생의 집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는 오고세(越生)에서 열렸던 성서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차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집에 도착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할아버지(土屋孝一)는 매우 솔직담백한 분이었는데, 할머니와 결혼 하면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고, 두 분은 늘 함께 성서를 읽고, 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부모님이신 사토시(土屋聰)와 메구미 님은 독립학원고등학교에서 만나 결혼하여 내가 태어난 것이다.

할아버지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성서 말씀과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가르침이 지금도 이어져가고 있다. 가족 안에서 대대로 전해지면서 형성되고 발전해온 무교회 신앙은 기도, 이웃에 대한 배려, 평화의 소망, 그리고 청빈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가훈이나 법전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

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조금씩 쌓여온 것이라 생각한다.

언제나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가족과 집회원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가면서 진지하게 평화를 구하며 살아오셨던 두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이라.

깊은 사연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집회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랑이 부족했었다!”

겨우 한 마디였지만,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성서가 가르치듯이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며 격려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신앙가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주께서 바라신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두 할아버지와 두 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을 바탕으로, 나도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참으며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성하게 하는 띠입니다(골 3:13~14).” (桜台 가정집회)

* 외할아버지인 이시하라 쇼이치(石原正一) 님은 전쟁에 소집된 참전용사였다. 그러나 나라에서 주는 참전용사연금을 거부하였다. 전쟁이라는 죄악에 참여한 자신을 회개하고 그 대가로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신앙양심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으리라(편집자 주).

<위의 글을 소개하며>

한국무교회에도 벌써 3세대의 무교회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 있지만, 매우 드문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읽자마자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였더니, 글을 쓰신 츠치야 마호 님도 이렇게 승낙의 메일을 보내주셨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저의 부족한 글이 소개된다면 저로서는 정말 영광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배명수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교류를 활발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족한 저의 글로 한국과 일본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을 아시면 정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호 씨의 글을 우리 가족은 가정예배 때 일부러 손자들과 함께 읽었다. 초등학교생인 손녀도 유치원생인 손자도 마호 씨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빠엄마의 신앙을 이어가고 싶다고 어른스럽게 말해주어 박수치며 감사했다.

나는 이 순수한 무교회 정신과 신앙을 아이들이 부디 이어가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해 왔다. 다행히도 나의 외할머니에서 시작된 복음신앙이 부모님으로 이어졌고, 나와 아내가 순수한 신앙모임인 무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아들 내외가 손주들과 함께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무교회 신앙은 성서가 가르치는 참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무교회 정신, 무교회 신앙을 가족과 함께 지켜가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일인가.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다시 읽으시기를 추천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이 아름답게 살아나기를 바란다.

이 글을 성서신애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츠치야 마호 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편집인 손현섭).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2:1-24)

전 준 덕

2장 1절 : Καὶ ἐν τῷ συμπληροῦσθαι τὴν ἡμέραν τῆς πεντηκοστῆς ἦσαν ἅπαντες ὁμοθυμαδὸν(πάντες ὁμοῦ) ἐπὶ τὸ αὐτό.

사역 : 이제 오순절 날이 다가오자. 저들은 다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주) 1. συμπληροῦσθαι : συμπληρώ(σύν+πληρώ의 합성동사 및 단 축동사)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 (수) 가득하다, 시간이 차다, 때가 가까이 오다)라는 동사의 현, 중(수), 부정사.

2. ἡμέραν : ἡμέρα의 단, 대격(1:2).

3. πεντηκοστῆς : πεντηκοστή(πέντε+κοσέω의 합성어) (오순절)의 제1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4. ἅπαντες : ἅπας(πᾶς의 강한 어형) (모두, 다, 전체의)의 제3변화 형 용사에 속한 남, 복, 주격.

5. ὁμοθυμαδὸν(부) : (ὁμός+θυμός의 합성어) : (한 마음으로, 한뜻으로, 만장일치로, 다 같이, 단번에, 동시에)

6. ἐπὶ τὸ αὐτό : (같은 장소에, 한곳에, 다 함께, 다 같이)의 속어.

2절 : καὶ ἐγένετο ἄφνω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ἦχος ὥσπερ φερομένης πνοῆς βιαίας, καὶ ἐπλήρωσεν ὅλον τὸν οἶκον οἳ ἦσαν καθήμενοι·

사역 :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치 억센 바람과 같은 것이 밀려오게 되자 저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 주) 1. ἄφνω(부) : (갑자기, 뜻밖에, 문득, 의외로)
2. οὐρανοῦ : οὐρανός의 단, 소유격. (1:10)
3. ἦχος : (소리, 소식, 소문)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4. ὥσπερ(ὡς+πέρ의 합성어) (부) : (마치 ~처럼, ~와 같이, 그렇게)
5. φερομένης : φέρω(지다, 운반하다, 옮기다, 가져가다, 부지하다, 받들다, 보존하다, 참다, 견디다, 데려오다, 데려가다, 내다, 열매 맺다, 산출하다, 출산하다, 주장하다, 전진하다, 인도하다, 돌리다, 밀어내다, 몰다, 밀리다, 밀려가다, 표류하다, 이끌리다, 움직이다, 감동받다, 돌진하다, 몰려가다(오다) 나아가다, 달려들다, 가져오다, 나오게 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발언하다, 시작하다, 내밀다, 인도해 가다, 들어가다, 데리고 가다 등등)라는 동사의 현(중), 분, 여, 단, 소유격.
6. πνοῆς : πνοή(바람, 숨, 호흡)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7. βιαιίας : βίαιος(폭력을 쓴, 난폭한, 강제적, 강력한, 억센)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소유격.
8. ἐπλήρωσεν : πληρώ(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16)
9. ὅλον : ὅλος(모두의, 전체의, 전부의)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대격.
10. οἶκον : οἶκος(집, 거처, 처소, 식구, 소유, 재산, 가문, 도시, 나라, 국가)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11. καθήμενοι : κάθημαι(앉다, 주저앉다, 거처하다, 살다, 머물다)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복, 주격.

3절 : καὶ ᾤφθησαν αὐτοῖς διαμεριζόμεναι γλῶσσαι ὥσθι πυρός,

(καὶ) ἐκάθισέν τε ἐφ' ἓνα ἕκαστον αὐτῶν·

사역 : 그런데 불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각 사람 위에 내려왔습니다.

주) 1. ὤρθησαν : ὀράω(단축동사) (보다, 보이다, 쳐다보다, 주목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수) 보이다, 나타나다, 경험하다, 깨닫다)라는 동사의 제2과, 수동, 직설, 복, 3인칭.

2. διαμεριζόμενα : διαμερίζω(δία+μερίζω의 합성동사) (나누다, 분리하다, 가르다, 분배하다, 갈라지다, 찢어지다)라는 동사의 현, 중(수), 분, 여, 복, 주격.

3. γλῶσσαι : γλῶσσα(혀, 말, 언어, 방언)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주격.

4. ὡσει(부)(비교를 나타내는 불변사) : (~같이, ~처럼, (수사, 척도, 도량 등) : 약, 대략, 쯤)

5. πυρός : πῦρ(불)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6. ἐκάθισεν : καθίζω(앉게 하다, 두다, 임명하다, 세우다, (중) 앉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7. ἕκαστον : ἕκαστος(각기, 매, 마다, 하나하나)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대격.

8. ἐφ' ἓνα ἕκαστον : (각 사람 위에)의 속어.

4절 : καὶ ἐπλήρθησαν ἅπαντες(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ἑ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καθὼς τὸ πνεῦμα ἐδίδου αὐτοῖς ἀποφθέγγεσθαι.(αὐτοῖς.)

사역 : 이제 저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들에게 담대히 말하도록(능력을) 부여한 이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

였습니다.

주) 1. ἐπλήσθησαν : πλήσθω(채우다, 성취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복, 3인칭.

2. ἤρξαντο : ἄρχω의 제1과, 중간, 직설, 복, 3인칭. (1:1)

3. λαλεῖν : λαλέω(단축동사) (말하다, 이야기하다, 발언하다, 주장하다, 언명하다, 선포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부정사.

4. ἑτέροις : ἕτερος의 여, 복, 여격. (1:20)

5. γλώσσαις : γλῶσσα의 복, 여격. (2:3)

6. καθὼς(κατά+ὥς의 합성어) : (~과, 같이, 마치 ~처럼, ~만큼, ~대로, ~한 이상, ~니까)

7. ἐδίδου : δίδωμι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 (1:26)

8. ἀποφθέγγεσθαι : ἀποφθέγγομαι(ἀπό+φθέγγομαι의 합성동사) (용기 있게 말하다, 대담하게 말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부정사.

5절 : Ἦσαν δὲ ἐν(είς) Ἱερουσαλὴμ κατοικοῦντες Ἰουδαῖοι, ἄνδρες εὐλαβεῖς ἀπὸ παντός ἔθνους τῶν ὑπὸ τὸν οὐρανόν.

사역 : 이제 히예루살렘에 이우다이어인들이 유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천하만국에 흩어져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1. κατοικοῦντες : κατοικέω(κατά+οικέω의 합성동 및 단축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1:19).

2. εὐλαβεῖς : εὐλαβής(εὖ+λαβάνω의 합성어) (존경하는, 경건한, 조심하는)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주격.

3. παντός : πᾶς의 남(중), 단, 소유격(본절은 중성). (1:1)

4. ἔθνους : ἔθνος(군중, 나라, 민족, 백성, 인민, (복) 이방인들)의 제3 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5. ὑπό(전) (속격과 대격 지배) (본절은 대격 지배) : (아래, 밑에, 둘레에, ~ 무렵)

6. ἀπὸ παντὸς ἔθνους τῶν ὑπὸ τὸν οὐρανόν : (온 천하만국에)의 속어.

6절 : γενομένης δὲ τῆς φωνῆς ταύτης, συνῆλθεν τὸ πλῆθος καὶ συν ἐχύθη· ὅτι ἤκουον εἷς ἕκαστος τῇ ἰδίᾳ διαλέκτῳ λαλοῦντων αὐτῶν.

사역 :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자. 군중이 함께 모여 소란스럽게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들은 각자 자기들이 말한 방언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1. γενομένης : γίνομαι의 제2과, 중간, 분, 여, 단, 소유격. (1:16)

2. συνῆλθεν : συνέρχομαι(σύν+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1:21).

3. πλῆθος : (수, 양, 다수, 무리, 군중, 민중, 백성, 인민, 교세, 단체, 교회)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4. συνεχύθη : συγχέω(σύν+έχω의 합성동사) (함께 쏟아내다, 섞다, 혼란케 하다, 혼돈케 하다, 소란스럽게 하다, 어지르다, 뒤끓게 하다, 당황케 하다 (수) 놀라다, 흥분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5. ἤκουον : ἀκούω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1:4)

6. εἷς ἕκαστος : (각 사람마다, 각자, 각각)의 속어.

7절 : ἐξίσταντο δὲ πάντες καὶ ἐθαύμαζον, λέγοντες πρὸς ἀλλήλους, Οὐκ(οὐκ) ἰδοὺ πάντες(ἅπαντες) οὗτοί εἰσιν οἱ λαλοῦντες Γαλιλαῖοι;

사역 : 그래서 저들은 모두 정신을 잃었고 놀랐으며 상호간에 말하기를

보십시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라이오스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 1. ἐξίσταντο : ἐξίστημι(ἐκ+ἵστημι의 합성동사) (옹기다, 놀라게 하다, 의식을 잃게 하다, 기절하게 하다. 혼란케 하다, 변하다, (자)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놀라다)라는 ~미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 복, 3인칭.

2. ἐθαύμαζον : θαυμάζω(기히 여기다,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타) 찬양하다, 아첨하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단수, 1인칭도 됨).

3. λαλοῦντες : λαλέω(단축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2:4)

8절 : καὶ πῶς ἡμεῖς ἀκούομεν ἕκαστος τῇ ἰδίᾳ διαλέκτῳ ἡμῶν ἐν ᾗ ἐγεννήθημεν.

사역 : 우리 각자가 태어난 우리의 방언으로 어찌 들을 수 있단 말이요!

주) 1. πῶς(부)(의문의 불변사) :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권리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감히? (감탄문에서) 어찌나! 얼마나! 어떻게나! 어찌면!)

2. ἀκούομεν : ἀκούω의 현, 능동, 직설, 복, 1인칭. (1:4)

3. ἡμεῖς : ἐγώ(인칭, 대)의 복, 주격. (1:4)

4. ᾗ : ὅς의 여, 단, 여격. (1:1)

5. ἐγεννήθημεν : γεννάω(단축동사)(낳다, 내다, 아버지가 되다, 산출하다, 열매 맺다, 일으키다, 태어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복, 1인칭.

9절 : Πάρθοι καὶ Μῆδοι καὶ Ἑλαμίται, καὶ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τὴν Μεσοποταμίαν, Ἰουδαίαν τε καὶ Καππαδοκίαν, Πόντον καὶ τὴν Ἀσίαν,

사역 : 파르도스인들, 그리고 메도스인들과 엘라미토스인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우다아 그리고 갈파도키아, 폰토스, 아시아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10절 : Φρυγίαν τε καὶ Παμφυλίαν, Αἴγυπτον καὶ τὰ μέρη τῆς Λιβύης τῆς κατὰ Κυρήνην, καὶ οἱ ἐπιδημοῦντες Ῥωμαῖοι, Ἰουδαῖοί τε καὶ προσήλυτοι,

사역 : 프뤼기아 그리고 팜필리아, 아이굽토스와 키투레네 근처인 리비아에 있는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또 로마이오스의 나그네로 사는 이우다이 스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주) 1. ἐπιδημοῦντες : ἐπιδημέω(ἐπί+δημ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백성 중에서 살다, 동네에서 살다, 나그네로 살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2. προσήλυτοι : προσήλυτος(πρός+ήλώω의 합성어) (새로 온 자, 개종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주격.

11절 : Κρήτες καὶ Ἀραβες, ἀκούομεν λαλούντων αὐτῶν ταῖς ἡμε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τὰ μεγαλεῖα τοῦ θεοῦ;

사역 : 크레스인들과 아랍스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언들로 하 나님의 놀라운 것들을(행하고 있는데)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지요?

주) 1. λαλούντων : λαλέω의 현, 능동, 분, 남, 복, 소유격. (2:4)

2. ἡμετέραις : ἡμέτερος(우리의,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것)의 제1, 제2 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복, 여격.

3. μεγαλεῖα : μεγαλεῖος(굉장한, 놀라운, 훌륭한, 장엄한, 화려한, 숭 고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12절 : Ἐξίσταντο δὲ πάντες καὶ διηπόρουν, ἄλλος πρὸς ἄλλον λ

έγοντες, Τί ἂν θέλοι(θέλει)τοῦτο εἶναι;

사역 : 그래서 모두 놀랐으며 몹시 당황하고 있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 어찌된 일이요?

주) 1. ἐξίσταντο : (2:7)

2. διηπόρουν διαπορέω(διά+πορ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몹시 당황하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단, 1인칭과, 복, 3인칭(본절은 복, 3인칭).

3. ἄλλος πρὸς ἄλλον : (상호 간에, 서로, 서로 간에)의 속어.

4. θέλοι : θέλω(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하고 싶다, ~할 생각이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뜻하다, 뜻을 세우다, 선택하다, 지지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희구법, 단, 3인칭.

5. εἶναι : εἰμί의 현, 부정사(1:1).

13절 : ἄτεροι δὲ χλευάζοντες(διαχλευάζοντες) ἔλεγον, Ὅτι γλεύκους μεμεστωμένοι εἰσίν.

사역 :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은 달콤한 새 포도주에 아주 취했구만”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1. ἄτεροι : ἄτερος(다른, 또다른, 더러는, 낯선 이웃)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주격.

2. χλευάζοντες : χλευάζω(조롱하다, 비웃다, 익살부리다, 얹어 여기다, 희롱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3. γλεύκους : γλεύκος(달콤한 새 포도주, 포도즙)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4. μεμεστωμένοι : μεστόω(단축동사) (가득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수)

가득 채워지다, 가득하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 남, 복, 주격.

14절 : Σταθείς δὲ(ὁ) Πέτρος σὺν τοῖς ἑνδεκα ἐπῆρεν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καὶ ἀπεφθέγγετο αὐτοῖς, Ἄνδρες Ἰουδαῖοι, καὶ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Ἱερουσαλὴμ ἅπαντες,(πάντες,) τοῦτο ὑμῖν γνωστὸν ἔστω, καὶ ἐνωτίσασθε τὰ ῥήματά μου.

사역 : 그러자 페트로스가 열 한 동료들과 함께 서서 자기의 음성을 높여 저들에게 당당히 말하기를 “이우다이스 사람들이여, 그리고 히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할 것이요 여러분은 내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오.

주) 1. σταθείς : ἵστημι의 제1과 수동, 분, 남, 단, 주격. (1:11)

2. ἐπῆρε : ἐπαίρω(유음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9)

3. ἀπεφθέγγετο : ἀποφθέγγομαι(ἀπό+φθέγγομαι의 합성동사) (용기 있게 말하다, 담대하게 말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4. ἐνωτίσασθε : ἐνωτίζομαι(έν+ώτίζομαι의 합성동) (귀 기울이다, 주의하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중간, 명령, 복, 2인칭.

5. ῥήματά : ῥήμα(말, 표현, 발표, 약속, 명령, 지시, 예언, 예고, 교훈, 사건, 사실, 일, 사물, 물건, 연설, 선언)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15절 : οὐ γὰρ, ὥς ὑμεῖς ὑπολαμβάνετε, οὗτοι μεθύουσιν· ἔστι γὰρ ὥρα τρίτη τῆς ἡμέρας·

사역 : 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제 삼시요.

주) 1. ὑπολαμβάνετε : ὑπολαμβάνω(ὑπό+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의 현, 능동, 직설, 복, 2인칭. (1:9)

2. μεθούσιν : μεθύω(술 취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직설, 복, 3인칭.

3. ὥρα : (낮때 시간, 짧은 시간, 잠간)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4. τρίτη : τρίτος(셋째, 세 번째, 삼분의 일)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주격.

5. ὥρα τρίτη : 제3시(오전9시)

16절 : ἀλλὰ τοῦτο ἐστὶν τὸ εἰρημένον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 Ἰωήλ.

사역 : 자 이것은 선지자 이오엘을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 1. εἰρημένον : ῥέω(말하다, 이야기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분, 중,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2. προφήτου : προφήτης(πρό+φημί의 합성어) (선지자, 예언자, 해석자)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17절 : Καὶ ἔσται ἐν ταῖς ἐσχάταις ἡμέραις, λέγει ὁ θεός, ἐκχεῶ ἀπὸ τοῦ πνεύματός μου ἐπὶ πᾶσαν σάρκα, καὶ προφητεύσουσιν οἱ υἱοὶ ὑμῶν καὶ αἱ θυγατέρες ὑμῶν, καὶ οἱ νεανίσκοι ὑμῶν ὀράσεις ὁψονται, καὶ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ὑμῶν ἐνύπνια(ἐνυπνίοις) ἐνυπνιασθήσονται.

사역 :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네들은 꿈들을 꿀 것이다.

- 주) 1. ἔσται : εἰμί의 미, 직설, 단, 3인칭. (1:1)
2. πᾶσαν : πᾶς의 여, 단, 대격. (1:1)
3. σάρκα : σάρξ(살, 몸, 신체, 육신, 혈통, 인간, 사람, 유연성, 제한성, 육정, 정욕)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4. ἐσχάταις : ἔσχατος의 여, 복, 여격. (1:8)
5. προφητεύουσιν : προφητεύω(πρό+φημί의 합성동사) (예언하다, 예고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미래 일을 예언하다, 알아 맞추다)라는 동사의 미, 능동, 직설, 복, 3인칭.
6. νεανίσκοι : νεανίσκος(νεανίας의 지소사) (청년, 젊은이, 종)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
7. ὁράσεις : ὄρασις(시각기관, 눈, 모습, 얼굴, 모양, 광경, 시각, 환상)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대격.
8. ὄψονται : ὄράω(단축동사)의 미, 중간, 직설, 복, 3인칭. (2:3)
9. πρεσβύτεροι : πρεσβύτερος(πρέσβυς의 비교급) (나이가 많은, 늙은(복) 옛 조상들, 원로들, 장로들, 유대인의 공회원)의 남, 복, 주격.
10. ἐνύπνια : ἐνύπνιον(ἐν+ϋπνιος의 합성어) (꿈, 환상)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본절은 대격).
11. ἐνυπνιασθήσονται : ἐνυπνιάζω(ἐν+ϋπνιάζω의 합성동사) (꿈꾸다)라는 동사의 미, 수동, 직설, 복, 3인칭.

18절 : καὶ γὰρ ἐπὶ τοὺς δούλους μου καὶ ἐπὶ τὰς δούλας μου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ἐκείναις ἐκχεῶ ἀπὸ τοῦ πνεύματός μου, καὶ προφητεύουσιν.

사역 : 그때에는 내가 나의 종들과 여종들에게까지도 내 영으로부터 쏟아 부으리라 그러면 그들도 예언할 것이요.

주) 1. γέ(문장을 강조하는데 쓰인 후접사) : (적어도, 그래도, 그렇지만, 참으로)

2. καὶ γέ(제한적 의미) : (적어도, (강조적 의미) : ~까지도)의 속어.

3. δούλους : δοῦλος(노예가 된, 비굴한, 천한, 예속된, 종속적인, (명) 노예, 종)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대격.

4. δούλας : δούλη(여종, 여자노예)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대격.

5. ἐκείναις : ἐκεῖνος의 여, 복, 여격. (1:19)

6.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ἐκείναις : (미래에 대한) (그때에) (ἐν ἐκείναις ταῖς ἡμέραις)도 같은 속어.

19절 : καὶ δώσω τέρατα ἐν τῷ οὐρανῷ ἄνω καὶ σημεῖα ἐπὶ τῆς γῆς κάτω, αἶμα καὶ πῦρ καὶ ἀτμίδα καπνοῦ.

사역 :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징조를 아래로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의 증기를 내릴 것이오.

주) 1. δώσω : δίδωμι의 미, 능동, 직설, 단, 1인칭. (1:26)

2. τέρατα : τέρας(놀라움, 경이, 전조, 징조, 기사, 이적)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3. οὐρανῷ : οὐρανός의 단, 여격. (1:10)

4. ἄνω(부) : (위에, 위로, 위로 향하여)

5. σημεῖα : σημεῖον(표, 표식, 표징, 표적, 증거, 상진, 신호, 기적, 이적, 놀라운 일, 비상한 현상, 전조, 징조)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6. γῆς : γῆ의 단, 소유격. (1:8)

7. κάτω(부) (장소에 대하여) : (밑에, 아래, 밑으로, 아래로, 밑의, 땅의)

8. ἀτμίδα : ἀτμίς(안개, 연기, 증기)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9. καπνοῦ : καπνός(연기)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20절 : ὁ ἥλιος μεταστραφήσεται εἰς σκότος καὶ ἡ σελήνη εἰς αἴμα, πρὶν ἢ ἐλθεῖν τὴν ἡμέραν κυρίου τὴν μεγάλην καὶ ἐπιφανῆ·

사역 :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태양이 어두움으로 변화되고 달이 피로 변화되리라

주) 1. ἥλιος : (해, 태양)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주격.

2. μεταστραφήσεται : μεταστρέφω(μετά+στρέφω의 합성동사) (모양이 변하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변하게 하다, 고치다, 왜곡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3. σκότος : (어두움, 흑암, 암흑)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 (본절은 대격)

4. σελήνη : (달=月)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5. πρὶν(부) (시간) : (전에, 앞에)

6. ἐλθεῖν : ἔρχομαι의 재2과, 능동, 부정사. (1:11)

7. κυρίου : κύριος의 단, 소유격. (1:6)

8. μεγάλην : μέγας(큰, 위대한, 많은, 강한, 넓은, 무게 있는, 비상한, 놀라운, 고상한, 중요한, 숭고한, 높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대격.

9. ἐπιφανῆ : ἐπιφανής(ἐπί+φανός의 합성어) (찬란한, 훌륭한, 영광스러운, 놀라운)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대격.

21절 : καὶ ἔσται, πᾶς ὃς ἂν ἐπικαλέσῃται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

οεται.

사역 : 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함을 받을 것임을 말하였소.

주) 1. ἐπικαλέσεται : ἐπικαλέω(ἐπί+κα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부르다, 청하다, 이름 부르다, 이름을 주다, 별명을 지어 주다 (중)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가정, 단, 3인칭.

2. σωθήσεται : σώζω(구하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보존하다, 병에서 놓아지다 (수) 낫다, 건강해지다, 병을 고치다, 구원을 얻다)라는 동사의 미.수동, 직설, 단, 3인칭.

22절 : Ἄνδρες Ἰσραηλῖται, ἀκούσατε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ἄνδρα(ἀποδεδειγμένον) ἀπὸ τοῦ θεοῦ ἀποδεδειγμένον εἰς ὑμᾶς δυνάμεσιν(δυνάμεσι) καὶ τέρασιν καὶ σημείοις, οἷς ἐποίησεν δι' αὐτοῦ ὁ θεὸς ἐν μέσῳ ὑμῶν, καθὼς καὶ αὐτοὶ οἶδατε,

사역 :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곧 나조라이오스에서 나신 이예수스님을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보여 주었소이다.

주) 1. ἀκούσατε : ἀκούω의 제1과, 능동, 명령, 복, 2인칭. (1:4)

2. λόγους : λόγος의 복, 대격. (1:1)

3. τούτους : οὗτος의 복, 대격. (1:11)

4. ἄνδρα : ἀνὴρ의 단, 대격. (1:10)

5. ἀποδεδειγμένον : ἀποδεικνυμι(ἀπό+δείκνυμι의 합성동사) (~로 삼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보여주다, 지적하다, 증명하다, 증거하다)라는 ~μι

동사의 완료, 중(수), 분, 남, 단, 대격.

6. δυνάμεσιν : δύναμις의 복, 여격. (1:8)

7. τέρασιν : τέρας의 복, 여격. (2:19)

8. σημείοις : σημεῖον의 복, 여격. (2:19)

9. ἐποίησεν : ποι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1)

10. αὐτοί : αὐτός의 남, 복, 주격. (1:3)

11. οἶδατε : οἶδα의 복, 2인칭(οἶδα는 εἶδω(알다)의 제2완료형이나 뜻은 현재로 쓰임)

23절 : τοῦτον τῇ ὠρισμένῃ βουλῇ καὶ προγνώσει τοῦ θεοῦ ἔκδοτον λαβόντες διὰ χειρῶν(χειρὸς) ἀνόμων προσπήξαντες ἀνείλετε· (ἀνείλατε,)

사역 :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이미 아시는 데로 그분을 넘겨주고 불법한 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소이다.

주) 1. ὠρισμένη : ὀρίζω(정하다, 지정하다, 결정하다, 확정하다, 제한하다, 계획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선포하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 여, 단, 여격.

2. βουλῇ : βουλή(의도, 뜻, 의향, 의견, 동기, 목적, 결정, 결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3. προγνώσει : πρόγνωσις(πρό+γνώσις의 합성어) (예지, 미리 아는 것)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4. ἔκδοτον : ἔκδοτος(ἐκ+δότης의 합성어) (넘겨진, 넘어간)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대격.

5. λαβόντες : λαμβάνω의 제2과, 능동, 분, 남, 복, 주격. (1:8)

6. χειρῶν : χεῖρ(손, 세력)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소유

격.

7. ἀνόμων : ἄνομος(ἀ+νόμος의 합성어) (법이 없는, 법을 어긴, 불법한, 악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복, 소유격.

8. προσπήξαντες : προσπήγνυμι(πρός+πήγνυμι의 합성동사) (고착시키다, 고정시키다, 못박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복, 주격.

9. ἀνείλετε : ἀναιέω(ἀνά+αίρ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 없애버리다, 죽이다, 파멸시키다, 말살시키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복, 2인칭.

10. τοῦτον : οὗτος의 남, 단, 대격. (1:11)

24절 : ὃν ὁ θεὸς ἀνέστησεν, λύσας τὰς ὠδῖνας τοῦ θανάτου, καθὼς οὐκ ἦν δυνατόν κρατεῖσθαι αὐτὸν ὑπ’ αὐτοῦ.

사역 :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어 살려 주셨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사망 아래에 둘 수 없기 때문이오.

주) 1. ἀνέστησεν : ἀνίστημι(ἀνά+ῖστημι의 합성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15)

2. λύσας : λύω(풀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헐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부수다, 없애다, 해산시키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3. ὠδῖνας : ὠσίν(해산의 고통, 진통)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대격.

4. θανάτου : θάνατος(죽음, 사망)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5. καθότι(κατά+ὅτι의 합성어) (~같이, ~만큼, 때문에, 왜냐면, ~라는 사실로 보아서)

6. δυνατόν : δυνατός(힘 있는, 강한, 강력한, 유능한, 가능한, 뛰어난,

능통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단, 주(대)격(본절은 주격).

7. κρατεῖσθαι : κρατέω(단축동사) (손에 넣다, 붙잡다, 체포하다, 수감하다, 쥐다, 달성하다, 이루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간직하다, 집착하다, 막다, 수중에 두다, 꼭 붙들다, 굳게 지니다)라는 동사의 현, 중(수), 부정사.

【8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19줄	중성, 명사의 단,	중성명사의 단,
4쪽20줄	들어오라	들어오다
4쪽 21줄	단, 3인칭과	단, 1인칭과
5쪽7줄	동사의 현, 능동, 직설,	동사의 현, 능동,
7쪽24줄	이루다, 왕성하다,	이루다, 완성하다,
11쪽16줄	αὐτοῦ λάβον(λαβέτω)	αὐτοῦ λάβοι(λαβέτω)
12쪽20줄	ἐν παντὶ χρόνῳ ἐν	ἐν παντὶ χρόνῳ ἐν
12쪽23줄	모든 사람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13쪽6줄	5. εἰσῆλθεν : εἰσέχομαι (εἰς+ἔρχομαι)의	5. εἰσῆλθεν : εἰσέρχομαι (εἰς+ἔρχομαι)의
14쪽17줄	δύο ὃν ἕνα, ἐξελέξω	δύο ἕνα ὃν ἐξελέξω
15쪽2줄	(καρδία+γινώσκω)의	(καρδία+γινώσκω)의

에베소서 읽기(5)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손 현 섭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엡 1:4).

1.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여기저기에 새로 만들어진 에클레시아에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다. 이제 막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1-3절의 끝부분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고백한다. 이미 받았다고 하는 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믿음이며, 사랑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평화이다.

2. 본문 살피기

1)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였다고 선언한다. 중요한 건 ‘그

리스도 안에서’이다. 이 선택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 개인을 콕 집어 말하는지는 어떤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선택에 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먼저 거부감을 느낀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어서 스스로 신앙을 가질 것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면 운명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강조하면 전도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는 전도자까지 있는 상황이다.

성서는 이런 논리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하였다’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성서에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증언이 아주 많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성령에 의하여 선택을 받아서, 즉 구별 받아서 진리를 믿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직접 선택해 주신 결과이다.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쓸 때마다 에클레시아의 집회원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벧전 1:2)’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체험으로 안다. 그래서 이 ‘선택’, 특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직접 선택하셨다는 건 천지창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 것은 이 선택이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태초, 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는 이야기라고 본다. 즉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다. 여기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구절은 바울 이외에도 종종 사용하였던 말이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이라는 뜻이다(마 13:35, 눅 11:50, 요 17:24, 벧전 1:20, 계 13:8).¹⁾

이런 사실을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실물로 보았음에도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구약성서에 능통한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조차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어찌면 진심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한 적도 없고, 그의 제자들조차도 만난 적이 없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말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8-10).

이 창세 전의 선택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가 이어져 오는 내내 항상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정리를 해도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의 강제로 이끌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2)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것도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인 태초부터 말이다. 바울은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1) https://kurosaki-commentary.com/kurosaki_frame.cgi?49+1+2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라는 진술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 마찬가지로의 표현을 사용한다(5:27). 다른 서한들(고전 1:8 ; 살전 5:23)에서는 특히 흠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책망받지 않을 신자들의 자질이다.

“흠이 없게 보전된다”(살전 5:23)는 예수의 재림 때 우리의 낮은 몸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흠이 없다”는 건전하다, 전체다, 결함이 없다, 순진하다 및 순수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다고 부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여지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선택에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바울 서한에서 거룩하다와 흠이 없다가 함께 붙여 쓰이지만 ‘거룩하다’가 ‘흠이 없다’의 앞에 먼저 쓰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시는 은혜에 수반하는 또 다른 선물이기 때문이다.²⁾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사람들을 택하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물론 아니다. 지금 나의 하루하루 삶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흠투성이의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흠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거라 한다. 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은 빛이어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요일 1: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 조명한, 에베소서의 이해, (40-41)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 벰전 1:16).”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거룩하기는커녕 매일 새로운 흠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운명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리라는 엄청난 선언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면이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까닭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3)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분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분 앞에 서는 상황을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완전하게 행하여 내 앞에 오라가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흠 없고 거룩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완전무결을 의미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 많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이며, 책망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흠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4)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서는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므로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은 나를 보시니 흠 없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봐주시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감싸여 (in love)’ 서 있게 된다. NIV를 보면 그 광경을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

For he chose us in him 그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to be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in his sight. In love. 그분 앞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완전을 요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마주할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송사(訟事)하지 못한다.

3. 맺으며

오늘의 공부에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씀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묻는다.

“만일 네가 창조주의 선택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든 네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니, 비신자에게는 어이없는 허언, 비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교만하다는 비난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선택을 진실이라 굳게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본 것처럼 믿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으니 무슨 일을 하든 다 용서가 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사도 요한이 가르침을 준다.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요일 3:3).”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루하루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의무라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고 살아가야 한다.

‘선택받은 자녀’의 문제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참 놀라운 수수께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그리고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자란 것, 믿음이 돈독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것, 신앙의 스승과 동료들을 만나게 된 것 등등 이 모두가 나의 노력이 전혀 아니다.

쓰카모토 선생은 그저 마당에 서서 손을 벌리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었다고 ‘신앙의 4단계’라는 글에서 이야기하였다. 나야말로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줄곧 달려왔고, 벌써 70의 나이가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끄심인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울 사도 소전(小傳)6-2

최 정 일

2. 바울 사도가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보낸 편지들과 명함 쪽지[한글 가톨릭 성경의 견해]

(1) 적어도 네 번은 보냈고 명함 쪽지도 한 장 보냈던 것 같다.

(2) 몇 가지 사실이 도움이 된다:

1) 고전 5:9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에 부도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도록 고린도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말한다.

2)고후 2:4에서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신랄한 편지에 대하여 말한다.

3) 이 두 편지는 사라져 버렸을까?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있는가?

4) 고전 6:14-7:1은 일정한 모양으로 문맥을 끊어놓고 있다. 이 구절은 우상들과 불경스러움에 대하여 다룬다. 이 대목은 고전 5:9에서 말하는 편지 조각으로 추측된다.

5) 고린도후서 10-13장은 앞의 장들과 다른 말투를 띠고 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을 엄격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 대목은 고후 2:4에서 말하는 편지로 추측된다.

6) 고린도후서 9장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 즉 모금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미 그 문제에 관하여 길게 다루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9장은 모금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뒤에 가서 쓴 명함 쪽지로 추측된다.

(3) 우리는 연대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고후 6:14-7:1은 고린도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이전

에 쓴 편지 조각으로 추측된다.

2) 고린도전서

3) 고린도후서10-13장은 눈물을 흘리며 쓴 신랄한 편지로 추측된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의 사도직 직무의 진정성을 열렬히 옹호한다. 바울 사도가 받은 소명의 기원, 바울 사도의 복음의 참다움, 바울 사도가 취한 태도의 성실성을 밝히려는 고린도 그리스도 신자들의 압박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슬픈 마음으로 반발하면서 확신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나열한다. 왕성하고 걱정적인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바울 사도는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담하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격렬하고, 그러면서도 늘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직의 사명에 충실하다.

4) <고린도후서> 1-8장은 「눈물을 흘리며 쓴 신랄한 편지」[=위의 3]의 편지] 다음에 쓴 편지로 추측된다. 이 편지는 특히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 자신을 모욕한 어떤 사람의 경우를 상기시킨다. 디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파견을 받는다. 디도는 화해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돌아온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를 돕기 위하여 모금에 관한 교훈을 준다.

5) 고린도후서 9장은 바울 자신이 쓴 명함 쪽지로 추측된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모금 문제를 다시 다룬다. 이 명함 쪽지는 고린도 주변지역의 에클레시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3. 고린도 에클레시아 내의 네 개의 당파들 특히 그리스도 당파에 대하여 고데(Godet)의 입장에서의 분석

(1) 주해자 하인리히는, 아폴로가 영지주의자 내지 신비적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나 고데는 바울 사도와 아폴로 간에는 선포하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본다. 고전 3:5에서는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

입니까? 바울이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하였고, 고전 4:6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폴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알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폴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해석과 문학의 교양을 쌓아 바울 사도의 영향력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다.

(2) 여기서 게바(=베드로)의 당파가 언급되지만 베드로 사도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다고 추측할 필요는 없다. 아마도 베드로의 개인적 제자들이 고린도에 갔거나 또는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을 것이고 그들이 고린도에 돌아와서 (비록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와 달리 율법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선포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게바라는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 당파의 팔레스타인 기원의 증거를 제시한다.

(3) 그리스 교부(敎父)들, 칼빈, 모웨임, 아이히호른, 블랙 등은 그리스도 당파는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당파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고데가 보기에는 네 개의 당파들이 여기서 대칭적으로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고전 1:13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4) 이제 그리스도 당파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부 주해자는 4개의 당파가 각기 분리되어 집회를 가졌고 에클레시아가 4개로 쪼개졌다」생각하나 고전 14:23에서 「온 에클레시아가 한 자리에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하는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런 추측은 옳지 않다고 고데는 본다. 고데가 보기에는 고린도 에

클레시아의 외적 결합은 유지되었지만 그 도덕적 결합은 끝났다고 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의 4개의 장(章)[1-4장]에서 이 문제에 집중했다.

2) 파라르의 다음 해석도 독창적이거나 그 근거가 약하다고 고데는 본다:

① 아폴로 당파는 마르시온분파³⁾의 율법폐기적 영지주의의 선구자들이라고 파라르는 본다.

② 「베드로 당파」는 「반(反)바울 사도적인 예비온주의자들[청빈과 금욕을 주장하여 바울 사도의 서간들을 거부하고 유대율법을 고수함.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신자들에게 많았음. 이들은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의 편지들>에 나타나는 「유대주의자」로 추정됨]이라고 파라르는 본다.

③ 「그리스도 당파」는 유대교 신자 중 에세네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침투해 만든 당파라고 파라르는 본다.

3) 이제 그리스도 당파를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① 제1설:

(가) 이들 그리스도 당파는 사도들로부터 독립되어 자신들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뤼케르트, 호프만, 마이어, 하인리치, 르낭은 본다.

(나) 즉 그리스도 당파는 바울 사도를 혈통은 교만한 거짓교사들로 본다. 이 당파는, 물론 에클레시아가 그들을 가르친 전도자들[바울, 베드로, 아폴로 등]에게 속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자들은 주님에 의하여 에클레시아에 주어진 귀중한 선물임을 무시했다.

(다) 물론 고전 3:22에는 바울도 아폴로도 게바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

3) [기원 2세기에 율법폐기적 영지주의를 주장함. 로마의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에서 이단으로 배척됨. 그의 분파는 기원 6세기까지 활동했고 그 뒤에는 마니교(이원론을 주장함)와 융합됨. 구약성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신약성서를 저술함. 그는 “그리스도는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함. 또한 그리스도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나타나셨다고 주장함. 또한 12사도들은 유대주의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참 복음을 회복시키셨다고 봄. 마르시온은 「바울의 편지들」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개찬의 어구들이 쓰여 있으므로 자신이 참 해독을 해야 했다고 주장함. 또한 「이제 율법은 없고 구원은 은총만으로 된다」고 주장함]

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있으나, 고후 10:7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있고 고후 11:22-23에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② 제2설

(가) 이 견해에서 볼 때 그리스도 당파는 고린도의 합리주의자들로서 그리스 교양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도덕적 가르침을 아직도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남아있는 유대적 포장에서 해방시켜서 순수복음(=최고의 도덕=산상수훈의 도덕으로 봄)지상주의를 선포하려는 자들이라고 본다.

(나) 즉 그리스도 당파는 예수를 소크라테스로 만들려고 하고 복음을 순수도덕철학으로 만들려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다) 그러나 고데가 보기에 이 견해는 고전 1:18-24과 고전 3:18-20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전 1:18-24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는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선포의 어

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징(=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거리낌)이고 이방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라고 있다.

고전 3:18-20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욥 5:13] 했습니다. 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시 94:11(칠십인역)]했습니다」라고 있다.

(라) 또한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 당파는 고린도의 개종한 이방인들 사이에 그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 사이에 그 지지자들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③ 제3설

이 견해는 데네와 골트호른이 주장하는 설인데, 그리스도 당파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주의자의 지혜를 주장하는 당파라고 본다.

④ 제4설

(가) 이 견해는 쉥켈, 드 베테, 그림 등이 주장하는 설인데 그리스도 당파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들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초자연적 소통(=환시=이상)에 기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골로새 지역의 유대주의자들로서 고린도에 온 자들이라고 주장하며 고후 12:1-10에서의 바울 사도가 받은 환시(=이상)와 계시를 인용하는 자들이라고 본다.

(나) 고후 12:1-10에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환시)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나로서는 그가 몸째 그리 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은 그만 두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있다.

⑤ 제5설

(가) 이 견해는 대부분의 주해자가 취하는 견해다. 그리스도 당파란 예루살렘의 유대주의파를 가리킨다고 본다. 예루살렘의 유대주의파는 고린도 그리스인을 얻기 위해 할레나 기타 큰 의식물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 그리스도 당파」 특히 고후 11:22-23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라고 있다. 그리스도 당파는

모(母)교회인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와 자신들과의 유대를 자랑하며 서서히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이방인 에클레시아들에 침투하여 그들을 서서히 모세 율법의 멍에 하에 놓으려고 했다.

(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당파라고 주장했을까?

(a)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수장인 주의 형제 야고보와 자신들의 유대를 그 근거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슈토르, 후크, 베르톨트, 바이체커 등]. 그러나 고데가 보기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은 있음직하지 않다.

(b) 그리스도 당파는 곧 게바 당파와 동일한 당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바우어, 르낭]. 이들은 그 근거로서 ㉠ 그리스도도 율법을 준수하셨고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보면 「베드로 당파=그리스도 당파」이고 「바울 당파=아폴로 당파」라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고데가 보기에는 ㉠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의 합의를 보면 바울 사도의 입장과 베드로 사도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갈라디아서 2장에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합의를 반대하는 한 무리의 신자들(거짓형제들)이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견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c) 그리스도 당파는 유대주의자들로서 유대인과 할례받아 유대인이 된 이방인에게만 그리스도의 나라(메시아 왕)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4) 갈 2:1-10 :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인사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보는 견해가 있다[슈미트]. 그러나 고데가 보기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없었다.

(d) 그리스도 당파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서 온 유대주의자 사절인데 그들은 그리스도도 율법을 준수하셨고 율법을 폐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음을 그 근거로 내세우는 자들이라는 견해가 있다[로이쓰, 오지안 더, 클뢰페]. 이 견해는 그리스도 당파를 유대주의자들로서 바울 사도의 전도활동을 반대하고 예루살렘 사도회의 합의에 의하여 바울 사도에게 인정된 타협내용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고데가 보기에는 ㉠ 고린도후서에는 이 유대주의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많고 ㉡ 이 유대주의자는 율법 준수를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할례나 그 밖의 모세 의식물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자체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

(e) 그리스도 당파는 생전 예수와 개인적 연결을 가졌던 유대주의자들로서 70인의 제자 또는 예수의 형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홀스텐, 힐겐펠트]. 이 견해에 서서 그리스도 당파는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고 주장한다. 또 이 견해에 따라서 그리스도 당파는 자신에게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수장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추천장을 주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고데가 보기에는 ㉠ 만일 이 유대주의자의 주장이 맞다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합의를 깨는 것이 되며[갈 2:5-10] ㉡ 한편 홀스텐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 면책 사건에서 먼저 이 합의를 어겼으니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 합의를 어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나 바울 사도는 안디옥 면책 사건에서 이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을 이 합의에 따른 자유⁵⁾에서 벗어나게 하여 모세 율법의 예속하에 빠뜨릴 위험을 야기시킨 것, 즉 이방인과 더불어

5) 그리스도교로 회개한 이방인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합의 내용

음식을 먹지 않은 체한 위선적인 태도의 질책일 뿐이다.⁶⁾

⑥ 고대의 새로운 해석 찾기

(가)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 이미 거짓 형제파가 12제자파와 대립해 있었다[갈 2:4-6]. 거짓 형제파는 유다의 제사장 출신이거나 바리새인들이었으므로 자신들의 높은 학식과 지위 때문에 자신들이 사도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거짓 형제파야말로 반(反)바울 사도파였다. 그들은 스스로 베드로나 바울보다 예수의 마음을 더 잘 안다고 자랑한다.

(나) 이들은 신지학(神智學:theosophy⁷⁾)에 의하여 신을 체험·인식하려고 하는 신비설. 플로티노스나 석가모니의 사상 같은 요소를 사도들의 복음에 추가해서 사변적·문화적인 그리스인들을 유혹한다.

(다) 이 교만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은 고후 10:5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하였고, 고후 11:3에서는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고 있다.

(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그리스도 신자들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질책한다. 고후 11:4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도 참아주니 말입니다」 하였다.

(마) 이 유다주의자는 바울의 가르침이 빈약하고 초보적이라고 멸시한다. 이에 바울 사도는 이들이 인간의 지혜와 복음을 섞었다고 유다주의자들을 비판한다[고전 3:17-20]. 이들은 교만하여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6) 베드로 사도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비판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것을 본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태도가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신랄하게 공격한 것이다.

7) 통상의 인간적인 인식 능력을 초월한 신비적·직관적 영지[靈智]

하면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예수는 저주 받으라고까지 말한대[고전 12:3]. 예컨대 이들은 기원 100년경의 영지주의자인 케린투스⁸⁾가, 하늘의 그리스도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가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그 둘은 분리되었고 그때 천상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고 한 주장과 비슷하게 교만해졌다.

(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전도여행을 하던 때에는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가르치는 다양한 그리스도론이 있었다.

(사) 그리스도 당파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하는 당파였다. 고전 16:22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으라! 마라나 타(아람어), 우리 주님, 오십시오' 또 '마란 아타'로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된다.

(아) 결국 이 유대주의자들은 기원 2세기의 영지주의⁹⁾를 반영하였다.

(자) 고후 11:5과 고후 12:11에서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은 그리스도 당파를 가리킨다. 바우어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은 12사도라고 하며 12사도가 바울 사도를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고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우어의 주장에 반대한다:

Ⓐ 12사도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인정한다[갈 2:1-10].

Ⓑ 그 특출한 사도들이라는 표현에서 바울 사도도 적어도 보통의 사도임이 인정되고 있다[즉 이에 반하여 이른 바 그리스도 당파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정당한 권위 자체까지 부정한 자들이다].

Ⓒ 12사도가 고린도 에클레시아에서 바울 사도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8) 케린투스는 에베소에서 요한 사도의 적대자였다

9)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와 고대 철학의 언어(용어, 개념) (특히 플라톤의)를 결합함. 물질은 반신적이나 특히 영적 본성과 빛의 사자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고 봄[=이원주의]. 영혼이 낮은 물질세계에 떨어졌음. 낮은 물질세계는 더 낮은 신(=데미우르크)에 의하여 창조된 것[=즉 활동적인 악한 힘이 관념됨]으로 봄. 대표적 영지주의자들은 동방(=동양)에서 나옴. 영지주의적 전통은 중세의 카타레네에까지 이어지고 이 반(反)그리스도교적 영지주의 집단은 오늘날에도 나타남. 철학자 셸링, 뢰에, 폰 바아데르가 유행하기 전의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왜냐면 ㉠ 12사도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기 전 고린도에 온 적이 없고 ㉡행 4:13에서 12사도가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다.

㉢ 바울 사도는 고후 12:11; 11:20에서 방어적으로 비꼬며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유대주의자들은 신참자들이지 12사도가 아니다.

㉣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의연금 모금을 말하고 있는데, 고후 11:14-15에서 바울 사도가 갑자기 12사도를 사탄의 종이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차) 그리고 힐겐펠트와 홀슈타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70인 제자나 예수 형제들로 본다. 그러나 고전 9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라고 한 바울 사도의 한탄과 고후 11:14-15에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표현에 비추어 고데는 힐겐펠트와 홀슈타인의 견해에 반대한다.

(캐)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극단적 유대주의 파에서 보낸 자들이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비꼬아 특출한 사도들이라 한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 예루살렘 사도회의 합의를 무너뜨리고 ㉥ 자신들이 바울 사도가 세운 이방인 에클레시아를 장악, 지배하는 데 있었다.

4. 총괄

(1)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들 문제:

이에 대하여는 고데의 분석과 한글 가톨릭 성경의 분석이 대립되는데 한글 가톨릭 성경의 분석은 많은 추측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고데의 분석이 불완전하지만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고린도 에클레시아의 바울 사도의 적들 문제:

이에 대하여는 고데의 분석이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본다.

해방의 기쁨

(시편 126편)

한 정 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지 올해 79주년이 된다. 우리나라처럼 과거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감격스런 일이 있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고통스럽게 억눌렸던 생활에서 벗어나 갑자기 해방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다.

먼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1943년 카이로회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현재 대만의 중국대륙 지배시절) 모여 일본이 패전했을 경우에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거론.

－1945년 알타회담 : 소련 흑해 연안의 알타에서 미국·영국·소련의 지도자들이 모여 일본의 패전 시에 한국 독립의 전 단계로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논의.

◎ 신탁통치(信託統治)

국제연합의 신탁을 받아 연합국이 일정한 지역에 대해 통치를 하는 일.

－1945년 5월 8일 독일 항복.

－1945년 6월 26일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헌장 선포, 10월 24일 UN창설.

－1945년 7.17~8.2 포츠담회의 : 연합국 지도자들은 독일 포츠담에 모여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패망이 확실한 일본의 처리에 대하여 논의. 독

일의 4개국(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에 의한 점령통치 시작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한국의 독립을 요구.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였고 태평양에서는 아직 연합국과 일본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음.(태평양 전쟁)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1945년 8월 15일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1945년 12.16~26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결정.

드디어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신탁통치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1948년 8월 15일 완전하게 독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자유해방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의 광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70여 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경이 구약의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 B.C.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歸還, 고향으로 돌아옴)의 칙령(勅令,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을 내린다. (라 1:1-4)

고레스가 유다 포로 귀환을 허락하다 (라1:1-4)

;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

나눔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 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표준 새번역)

2. B.C.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라2:1-70)

3. B.C.458년 제2차 포로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라 7:11절-8장)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다 (라7:11-24)

；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일곱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중략)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준새번역)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7:27-28)

；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신 분이시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므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표준새번역)

4. 제3차 포로귀환이 B.C.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완전히 완성 된다.(느2:1-9) 이는 스룹바벨에 의한 제1차 포로귀환 이후 약 94년만이고, 에스라에 의한 제2차 포로귀환 이후 약 13년만의 일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느2:1-9)

；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소신의 조상이 문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문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 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표준새번역)

오늘 발표할 시편 126편이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귀환의 기쁨을 아하웨께 찬양한 노래이다.

제 126편(개역한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였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 통سن성경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 지어진 감사와 간구가 복합된 시로서 여호와와 구원에 대한 기쁨과(1-3절), 남은 자들의 해방을 위한 기원과(4절), 씨 뿌림과 수확의 비유에 의해 표현된 확신(5, 6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그랜드 종합주석

시편 85편, 107편 등과 같이 바벨론 포수(B.C.586-538년)에서 해방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는 본시는 포로에서의 해방이라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본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반부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때를 회상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어 후반부 4-6절에서는 아직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나머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해방시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126:1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본시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로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스2:1).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쁨의 감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시인은 그때의 심정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126:2 입에는 웃음이...혀에는 찬양이.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과 귀환이라는 경이로운 사실 앞에서 힘찬 웃음과 찬양을 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런 포로에서

의 귀환을 본 이방인들이 이 일을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하고 감탄해 마지않았다는 것이다.

◎ 섭리

; 섭리 (攝理, 영어: divine providence)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한다. (네이버 검색, 위키백과 한국어)

126: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돌리소서. 이로보아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은 유대 남부의 네게브 지역의 시내들이 건조기에는 메마르지만 강우기에는 많은 물이 흘러 시내가 회복되듯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두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다(Keil, Rawlinson). B.C.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 무려 79년만인 B.C.458년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B.C.444년에 완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그랜드 종합주석 9, 875-876쪽)

3. 유희세, 126편(2) 전환

- 1 아하웨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습니다.
-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쳤고
우리 혀에는 기쁜 노래가 넘쳤습니다.
그 때에 이방인들도 말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아하웨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 3 놀라운 일을 아하웨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 4 아하웨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소서.

남쪽 땅의 [말랐던] 시내[물이 다시 흐르는 것]같이
 5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들은
 기쁜 노래 부르며 [다시] 거둔 것입니다.
 6 그는 나갑니다. 울면서 나갑니다.
 씨 자루를 가지고.
 그는 돌아옵니다. 기쁜 노래 부르며 돌아옵니다.
 그가 거둔 단을 가지고.

1,2,3절. 기원전 538년, 바벨론의 포로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풀려나던 날, 그 날의 감격이 여기 있다. 1945년 8. 15의 감격을 상기하면 우리는 여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 조국 광복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였다.

이 시에 대하여 루터의 해석과 갈뱅의 해석을 비교해 보겠다.

루터는 1-3절의 해방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4-6절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속히 완성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갈뱅의 해석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것과 같이 1-3절은 과거에 이루어진 B.C.538년의 해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4-6절은 고국에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다만 갈뱅은 2절에 두 번 나오는 “그 때”(az)라는 말을 “지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국의 광복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날의 감격은 현재의 것이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해 물어버려서는 안 된다”(갈뱅). (not to bury in forgetfulness the grace of God.)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61-466쪽)

4. 맺으며

전반부 1-3절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

러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이다. 야하웨의 계획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 유다 포로의 귀환을 허락한 것이다. 고레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 ‘야하웨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다.’(1절). 상상도 못했던 경이로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70여 년간의 오랜 고통과 슬픔의 포로생활에서 풀려났다. 그 놀라운 사실에 그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꿈꾸는 자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신 야하웨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2절)라고.

4절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야하웨께 기도한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제2차, 제3차 포로귀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의 후반부 5-6절에서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버려져 척박해진 땅에 어렵게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야하웨께 찬양을 한다.

우리나라의 8·15 해방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누가복음 강해

제81강 평화의 주 (19:28-40)

矢内原忠雄(권태주 역)

1

여리고에서 예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군중의 선두에 서서 결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것은 스스로 사지에 들어가시는 몸인 것을 알면서 아무런 주저도 없이 죽음을 이기는 자의 용감한 발걸음이었다. 예수는 여리고에서 험한 비탈길에 올라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다. 베다니 촌의 유적은 지금도 남아있으나 벳바게는 형적도 없이 사라져 오늘 그 지점을 알 수 없다. 만일 양자가 인접한 둘의 마을이었다고 하면 벳바게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마태21:1에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있고 베다니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다.)

예수는 두 제자를 마주 보이는 마을로 보내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신다”고 하면 알아듣는다는 것이었다. 아마 이번 유월절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것을 그 마을의 아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제자는 끌고 온 나귀 새끼에 자기 옷을 걸쳐서 예수를 태웠다. 군중은 각각 자기 옷을 길에 펴고 그 위를 나귀에 탄 예수가 나아가셨다. 이리하여 감람산 기슭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내리막 언덕에 가까이 오셨을 때 따라오던 군중과 제자들 사이에 마치 이것을 개선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열광적인 흥분이 일어났다. 그것은 다음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1) 그들은 여리고와 또 다른 곳에서 목격한 예수의 기적적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보고 경탄해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즉 그리스도)라고 믿는 군중심리가 일어난 것.

(2) 예수의 경고와 교훈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하나

님의 나라가 즉시 실현되리라는 군중심리적 기대가 없어지지 않은 것(19:11).

이러한 이유로 군중과 제자들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19:38) 하고 말했다. 군중 속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금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단지 시끄럽다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를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외치는 것이 차마 듣지 못할 모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대답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19:40)

즉 예수는 군중과 제자들이 소리 높이 찬송하는 말을 내용적으로 시인해서 외치고 싶은 대로 외치게 했다.

위의 사건은 기사가 번잡하고 간결한 차이와 세부에 걸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실려 있다(마 21:1-11, 막 11:1-10, 요 12:12-16).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대해서 보완적이고 양자 사이에 기사의 중복이 없는 것이 통례이나 아주 예외적으로 4복음서에 똑같이 올려져 있는 사건이 있고 이 예수의 입성의 기사가 그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 이 일이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던가를 볼 수 있다.

2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를 따르며 군중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한 말은 4복음서에 따라 기사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즉 (누가복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19:38).

(마태복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21:9).

(마가복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11:9, 10).

(요한복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12:13).

이 네 글의 공통점은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로마 총독 정부가 전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정치혁명이 성취될 것을 기대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예수가 세우시려는 나라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천적인 영원한 생명의 나라였다.

이때 예수의 염두에는 저 스가랴 9:9의 예언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르기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 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용맹스럽게 군마를 타는 자는 이 세상의 왕이다. 온유하게 나귀를 타는 자는 천국의 왕이다. 로마총독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유대국의 정치적 독립을 계획하는 자는 저 마카베 집안의 유다처럼 군마를 타고 행진하는 왕이지만, 예수가 목표하는 구원은 죄의 울무에서 사람을 풀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에서의 해방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정치적 자유, 정치적 독립을 얻을 수가 있고 결코 그 역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성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람을 죄로 묶어두는 사탄을 때려 부스고 영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런고로 그는 후에 포박되어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의 심문에 답해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18:33-38참조) 지금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상징적 행위를 빌어 군중과 제자들에게 암시하셨다.

사람들의 천박한 이해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

며 즐겨 외친 것도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처음으로 그 예언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요한12:16참조)

3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따르는 군중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19:38). 하고 소리 높이 불렀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예수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2:14). 하고 말했다고 하는 같은 누가복음의 기사를 생각나게 한다. 예수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오셨을 때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노래하고 예수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는 군중과 제자들이 “하늘에는 평화로다” 하고 외친다. 앞뒤가 아름답게 대응하고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교환된다.

“땅에서는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주를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와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번제도 아니고 장엄한 의식도 아니고 부서진, 회개하는 영혼이다. 부서진, 회개하는 영혼을 지닌 온유한 사람은 예수의 구원을 즐겨 믿고 받는다. 그러한 영혼에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하늘에는 평화로다”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만물이 그(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

신 자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1:16-20) 이 글에 나온 “보좌” “주관” “정사” “권세”는 모두 군대계급의 명칭이며 자신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천사에 대한 것은 성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 전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며 후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악의를 가지는데 양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 같다. 밀턴의 “낙원상실”에는 사도시대에 유대인 사이에 퍼져있던 전설을 따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천사의 반역이 있고 하늘에서 싸움이 있던 후 악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되어 지상에 잠입해서 하나님에 대한 보복을 꾀하여 하나님이 지상에 창조하신 사람을 꾀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으로 인간의 죄의 기원을 서술하고 있다.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온 후에는 선한 천사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돕고 나쁜 천사는 이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람의 죄와 관련되어 천사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또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이중의 의미로 하늘에 평화를 가져온다. 첫째는 사람의 죄가 그 피로써 속량될 때 악천사의 괴수인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할 수 있는 이유를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은 끝난다. 적어도 무력화 된다. 둘째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인을 위한 죄의 속량이 될 뿐 아니라 반역한 천사를 위해서도 죄를 속량하신 것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야고보서2:19). 귀신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무서워 떨며 자기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희망이 주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예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사탄의 권위를 부스고 십자가의 피로써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다. 예수 땅에 내려오시면 땅에 평화가 있고 예수 하늘에 오르시면 하늘에 평화가 있다. 예수가 가시는 곳에 평화가 따르고 예수가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평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상에서 싸우는 날에도 평화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불러 올라갈 때에도 평화가 있다.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의 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소리 높이 노래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것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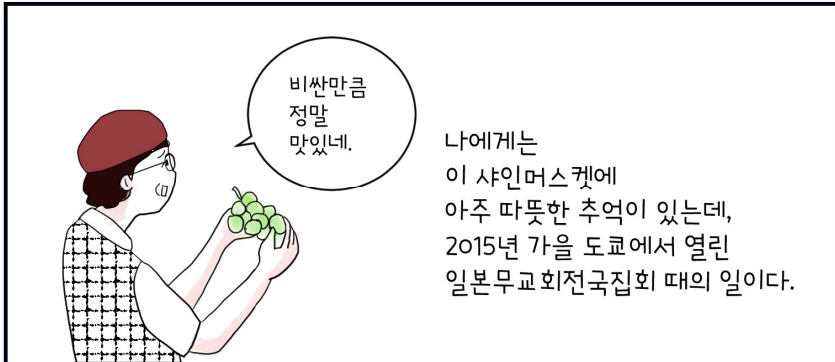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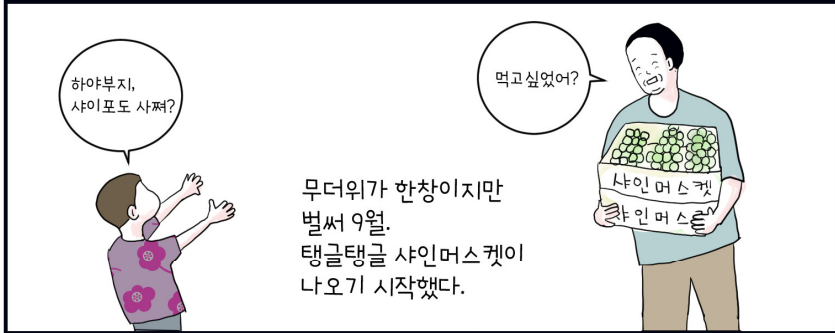
예수는 군중과 제자들이 바치는 찬송의 소리를 금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하셨다. 아마 주변에 많이 흠어져 있는 돌들을 가리키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왕을 맞이하는 기쁨의 때이기 때문에, 천사와 우리와 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대신하여 찬송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돌이 천사와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찬송의 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구원에 관계되는 우주적인 찬송의 노래이다. 시편:148에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찬송의 대합창이다. 누가 이것을 금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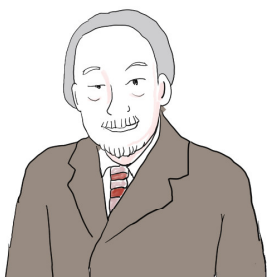
그러나 이 대합창 속을 지나가시는 분은 “온유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불품없는 예수이다. 이 무슨 외관상의 모순인가. 이 모순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사도조차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였다. 예수가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을 때 문자 그대로 “하늘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가 심판의 왕으로 다시 지상에 나타나실 때 문자 그대로 “땅에는 평화”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모순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다만 신앙 때문이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샤인머스켓의 추억>





후지오 썸은
국회도서관 공식생활을 중도에 그만두고
독립전도자로 살아오신 분이다.

특히 1919년의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사죄를 위해
양심적 일본인이 결성한 사죄위원회 총무로서
새교회와 주민회관 신축을 주도하였다.
(그 자료는 독립기념관에 기증함)

90세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매주 새글을 쓰신 열정가였다.

나는 첫 일본어 독서가
후지오 썸의 책이었던 인연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白鷺에클레시아
<http://t3.rim.or.jp/~fujio/>



고마워요.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되는
시예요.

아! 하는 사이 꽃이 지고
아! 하는 사이 신록이다.
초목은 이렇게 자라는데
못난 내 마음은 항상 그대롭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대로도 좋다. 괜찮다."
"그대로도 좋다. 괜찮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3:14)

완전한 구원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의 행진]

최 제 헌

노래 Louis Amstrong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drums begin to bang Oh, when the drums begin to bang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tars fall from the sky Oh, when the stars fall from the sky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moon turns red with blood Oh, when the moon turns red with blood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trumpet sounds its call	오,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X2) 오 주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오, 드럼이 울려 퍼질 때 (X2) 오 주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때 (X2) 오 주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오, 달이 핏빛으로 붉게 바뀔 때(X2) 오 주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오, 나팔 소리 울릴 때 (X2)
--	---

Oh, when the trumpet sounds its call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horsemen begin to ride Oh, when the horsemen begin to ride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brother Charles. you are my friend Oh, brother Charles you are my friend Yea, you gonna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오 주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오, 기마병이 말에 오를 때 (X2) 오 주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오, 형제 찰스여 너는 나의 친구야 (X2)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오,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X2) 오 주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해 올 때
이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엘비스 프레슬리 등 많은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으며 한국에서도 송창식, 윤형주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 흉내로 유명했던 김상국 등이 불렀으나 역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가 가장 유명하며 그가 죽은 지 35 년이나 지난 2006 년도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3 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조로우면서도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이 노래의 가사를 가수들이 즉흥적으로 바꾸어 부르는 일이 많은데 루이	

암스트롱도, 엘비스도 부르는 사람마다 모두 가사를 조금씩 바꾸어 불렀습니다.

즉흥적인 리듬,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 그리고 강렬한 합창으로 흑인 영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 노래는 원래 26절까지의 매우 긴 노래였으며 “Glory Glory Hallelujah” 등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공화국전투찬가)의 후렴구와 중복되는 가사를 담고 있었는데,

The battle hymn...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죽게 해달라”는 북군의 군가이며,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은 남부에서 북군을 기다리는 흑인 노예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1896년 흑인 목사 밀턴 뷰캐년이 현재의 가사로 짧게 수정했습니다.

미국의 시민전쟁(남북전쟁)이라면 미국의 자유, 평등 정신과 북군의 희생 그리고 전쟁의 참상이 강조되지만, 전쟁의 최대 수혜자인 흑인 노예들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하여 별 조명 없이 소홀히 넘어갑니다.

차라리 소, 돼지를 부러워하며 눈물 속의 나날을 보내던 흑인 노예들이 이 전쟁으로 희생되는 북군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며 큰 희망을 가졌었는지 공화국전투찬가(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에 호응한 이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1절 : “the saints”는 문법상 복수를 나타내는 형태이니 “성자들”이라는 표현이 되므로 많이 오해되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처음부터 아예 딴 이야기가 됩니다.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에서 “주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흑인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죽게 하소서”라는

군가 아래 36 만 명의 북군이 죽어갔는데, 남부에서 이 해방전쟁을 지켜보고 있던 흑인 노예들이 이런 북군을 하늘의 성자들(Saints)로 찬양한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비천한 흑인 노예들의 자유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던지는 북군의 백인 병사들이 흑인들에게는 거룩한 성도들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의 제목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의 “in”은 북군이 자신들이 있는 남부로 진군해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남부에서 백인 주인의 통제 아래 묶여 있는 자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북군이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이 싸움에 북군과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호응하는 노예들의 노래입니다.

2 절 : 역사적으로 북은 군사 행진을 알리는 중요한 도구였으며 전투가 시작될 때 북을 울려 군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드럼이 울려 퍼진다는 의미는 전쟁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흑인 노예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그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셨음을 느꼈을 것이고 설마 하며 기다리던 그 북소리에 심장이 두근두근했을 것입니다.

3 절 :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재앙이나 위대한 인물의 사망 또는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때”는 성자들 즉, 북군 병사의 죽음을 나타내며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죽어가는 전장에 자신들도 함께하고 싶어 하는 뜻을 보입니다.

4 절: “달이 핏빛으로 붉게 바뀔 때”라는 표현은 불길하고 불안감을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후세에 이 노래를 부르는 대부분의 가수가 다른 가사로 많이 바꾸어 부르는 소절인데,

성경에서 붉은 달은 종종 재앙, 혼란, 심판과 연관됩니다. 요엘 2:31에서는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라는 표현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6:12에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라고 하나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60만 명이 넘게 죽어간 남북전쟁의 처절한 참상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상징합니다. 노예들은 그 심판을 통해 억압받아 신음하는 자신들을 구원하시리라 기대하며 그 심판의 전쟁에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5 절 : “나팔 소리”의 일반적인 해석은 종말의 날을 알리거나 새 시대를 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성경에서 종종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 8-10 장에서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 심판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며, 마태복음 24:31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며 하늘 왕국으로 오는 신호로도 나팔 소리를 사용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15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나팔 소리가 기쁨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인용된 나팔은 북군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향한 희망의 여정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 절 : 요한계시록 6 장에는 네 명의 기수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데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전쟁, 기근, 질병, 죽음을 상징하므로 “기마병이 말에 오를 때에”라는 표현은 당시의 세상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시대를 바꿀 치열한 전쟁이 절정에 달하는 것을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절 : “오, 형제 찰스여 너는 나의 친구야”에서 “찰스”는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니며 뜻을 같이하는 친구를 그냥 찰스라는 애칭으로 불렀다는 것이 보편적인 설명인데, 저는 의미 없이 찰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 어딘지 허전해서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당시의 인물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는 뛰어난 리더쉽과 용맹으로 유명한 Charles Griffin(1820-1867)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앤티텀 전투,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맹활약하였으며 코트하우스 전투에서 그랜트장군 지휘하에 참전하여 남부 연합 리장군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려 미국 여러 도시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학교가 있으며, 워싱턴 DC에는 말을 타고 있는 찰스 그리핀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는 노예해방을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흑인들을 북군에 편입하는데 앞장선 장군입니다. 또한 전쟁 직후인 1865년 흑인이 포함되는 유권자등록을 위해 재건 정치에 참여하다가 1867년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흑인이 북군의 병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해방전쟁에 자신들이 직접 참전하는 것이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지는 자유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월급을 받는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내 재산을

가지고 내 가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북군의 해방전쟁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노예들의 입장에서 찰스 그리핀 장군을 가르켜 “내 친구 찰스여, 나도 그 행렬에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했다는 주장도 그럴듯하지요?

8절: 이 부분은 1절과 같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은 노예 해방을 위한 북군의 용기와 희생을 찬양함으로써 북군의 사기를 높여주었으며, 노예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노예해방을 위해 모두가 단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흑인들의 인권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래이며

오늘날에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노래입니다

이것으로 노래의 소개는 끝났는데, 흑인영가를 들으면 항상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뛰놀던 젊은이들을 잡아와 노예로 부리면서 주인이 흑인들에게 가르친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와, “노예는 생각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다”는 노예 의식을 어릴 때부터 골수에 심어주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프리카 음악을 들어 보셨나요? 물론 근대 들어 작곡된 “잠보 브아나”등을 제외하고 오래된 아프리카 전통음악을 들어보면 리듬감이 있고 특이하지만 지루해서 하품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리듬이나 즐기던 이들이 기초 교육도 받지 않고 강렬한 리듬과 흥겨운 멜로디, 그리고 깊은 열망을 가사에 담아, 영가(靈歌)라고 극찬받는 노래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또한 짐승과 흑인을 구분 못 하던 백인들이 흑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까요? 만일 하나님을 가르쳐 흑인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더 이상 노예로 막 부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노예들의 음악은 어디서 나왔으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 속에 스며들어 소망이 되었고 흑인 노예들은 성경을 주제로 영혼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역시 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했는데, 이 노래 외에도 Go down Moses, Swing low sweet chariot, Deep river, michael row the boat ashore, Come by here (Kumbaya) 등 슬픈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은 흑인영가는 흑인사회를 넘어 미국 대륙과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영가는 흑인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고, 하나님의 위안과 희망을 알게 하였으며, 흑인의 지적 능력을 깔보고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흑인의 뛰어난 능력을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비폭력적 방법이었으며, 흑인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잠시 신약성서에서 감동적인 부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

대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 7:36-50)”

종교국가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인 철저한 고립일 뿐아니라 가족에게도 배척되는 명예 사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웠으나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분으로 알았기에 최후의 용기를 내어 비싼 향유를 사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에 매우 치욕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이 여인은 필사적이었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 여인이 더러운 죄인인 것도 모르고 발을 맡긴 예수가 안쓰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

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해주시더라도 지역사회에서의 따돌림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종교 지도자이며 그 지역의 유지인 시몬에게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는 당위성을 먼저 납득시킨 후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종교 지도자가 인정했다는 사실이 함께 전해지며 이 여인이 예수의 죄 사함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열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게 되신 것이 설마 우연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공을 돌려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며 이 여인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데 이는 또한 죄를 사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여인은 그 자격이 있다는 말씀으로 추후에 논란될 수 있는 사면(赦免)의 정당성 시비에서도 이 여인이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자비로움에 거듭 감탄하게 됩니다.

이어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벅차고 고마운 말씀이었을까요? 이 “평안히 가라”는 예수의 인사는 죄 사함과 동시에 절박한 삶에서 벗어나 현세에서부터 하늘 나라를 맞이하게 하는 “완전한 구원”의 멍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는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던져주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흑인은 백인들 사회에서 여전히 천대받으며 열등 인간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해방전쟁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영가(靈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57:15)서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To revive the spirit of the humble,)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전하신 말씀이 흑인 노예들에게 영가를 통해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인간 이하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흑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어 감동적인 영가를 창작할 능력을 주셨고 인간의 영혼 깊이 감동을 주는 흑인영가는 흑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진했고 해방 이후 민권운동과 정치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정상적인 자유인의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또한 주셨듯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예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영감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흑인들과 함께하셨기에, 아프리카의 조상들에게 없던 이 능력이 당시 흑인 노예에게서 발현되었으나, 근래 흑인음악은 이러한 특성이 많이 퇴색되어 백인들의 음악이나 심지어 K-POP 등에도 밀리며 쇠퇴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흑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역사가 완성되었으며 자유를 얻은 흑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임하시어 내 눈물을 닦아주소서”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노예들의 꿈바야(Kumbaya)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며,

해방전쟁과 함께 주어진 그들의 영가(靈歌)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 이끄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2024 가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1. 일시 :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11월 3(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
2.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문당 환경농업 마을)
3. 전화 : 041-631-3537, 010-4591-4438
4. 참가비 : 1) 1인 50,000원
강당 대관료(1만5천원), 교재비(5천원), 식사(3식, 3만원)
2) 숙박을 하시는 분은 20,000원 추가입니다.(3인실 기준)
5. 참가 신청 : 9월 10일까지
 - 각 집회 대표에게 말씀해주시거나,
 - 운영자 손현섭(010-2060-5534)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십시오.
6.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강의는 원고에 충실해 주시고 원고는 늦어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노평구 선생 기념 강연회

- 일시 : 9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여성플라자 2층
(연락처 임세영 교수 : 010-3761-0323)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16호 2024년 9월

인	쇄	2024년	9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애 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